

과학적 진리와 칸트의 비판철학

글 | 엄정식 _ 서강대 철학과 교수 jsumek@hanmail.net

인간이 사물의 본질과 현상의 구조에 대해 인식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인간이 지닌 감각적 지각과 이성적 판단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때 오히려 이러한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고 동시에 그 한계를 초월할 수도 있다.

가령 어떤 어부가 어떤 장소에서 어느 정도의 투망 실력으로 어떤 종류의 그물을 사용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자기가 잡은 고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듯이 우리는 감각적 지각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성의 능력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식의 한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철학자가 바로 칸트였다.

인식의 중심을 '대상'에서 '주관'으로 옮긴 '구성설'

칸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인물은 뉴턴과 라이프니츠였다. 두 사람은 모두 천재적인 수학자였고 수학적 방법을 중요시했지만, 서로 강조하는 점이 각기 달랐다. 뉴턴은 실험과 관찰을 중요시하는 영국의 과학자였고, 라이프니츠는 논리와 사고를 중요시하는 독일의 철학자였다는 점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이 이룩한 성과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베이컨이 암시한 개미의 방법과 거미의 방법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입증하는 것 같았다. 칸트의 위대한 점은 이들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 모두에게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판적으로 종합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종합을 통해서 과학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식 자체가 그 한

계를 드러낼 뿐 아니라 그 위상을 확고하게 규정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이룬 업적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른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여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어 놓았듯이 칸트는 이른바 '구성설'을 제시하여 인식의 중심을 대상으로부터 주관으로 옮겨 왔기 때문이다.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천문학계를 지배한 것은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천동설이었다. 칸트 이전에 철학계를 주도한 것은 이원론인데,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해석할 때 세계는 정신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고, 인식론적으로 해석할 때는 인식의 주관과 인식의 대상은 구별되며 인식은 주관이 대상을 반영 혹은 묘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칸트는 구성설에 의해서 이 이원론에 타격을 가하고 그것을 제한적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칸트의 구성설에 의하면 사물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울에 비추듯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주관에 그것을 '그렇게' 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가령 한 그루의 소나무에 관해 생각해 보자. 통상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 소나무를 보든 말든 거기 그렇게 서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나무에 관해 판단하여 '그 소나무는 푸르다'라고 언급하면 이 발언은 참이거나 거짓이 된다. 나의 판단이 그 소나무의 모습과 제대로 대응하면 참이고 그렇게 않으면 거짓이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진리의 대응설이기도 하다. 그러나 칸트에 의하면 이것은 잘못된 생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동상

각이며, '대응'이란 말도 제한된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칸트에 의하면 우리가 소나무를 바라볼 때 그것은 항상 알 수 없는 그 무엇 혹은 본체와 우리의 인식구조가 합작 혹은 구성하여 만들어낸 현상으로서 나타난다. 이것을 다시 바다에 비유해 보자. 우리는 바다를 바라볼 때 바다 그 자체를 보지는 못한다. 그것은 항상 어떤 형태의 파도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파도와 바다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바다뿐이지만 우리에게는 파도로 인식될 뿐이다. 그런데 파도는 항상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며 인과의 법칙에 따라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구성설의 핵심이며 '시공'이라는 '감성형식'과 인과율을 비롯한 12개의 범주라는 '오성형식'이 빚어낸 결과이며, 인식에 있어서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칸트, "오성 자체가 자연법칙의 원천" 주장

물론 우리가 본 소나무나 파도가 단순히 허상이거나 상상의 소산이라고 칸트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본체'의 바다가 있기 때문에 파도라는 '현상'은 허구가 아니며, 인간이라면 그것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현상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현상(혹은 자연)에 우리 스스로 질서와 규칙성을 부여"하며 "오성 자체가 자연 법칙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며 "오성은 자신의 법칙을 (선천적으로)자연에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에 그것을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만약 구성설이 옳다면 뉴턴의 역학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인과율이 적용되는 3차원의 세계에서만 통용될 수 있으며 칸트가 말하는 '자연'이라는 파도에서만 객관성을 지닌다. 이러한 입장은 철학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의 자기 인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바렛에 의하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칸트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물리학에서 하이젠베르크가, 그리고 수학에서 괴델이 인간 이성의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도 칸트의 구성설을 지지한다. 경험 속에 주어지는 것은 '세계의 본성'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인간 의식의 자료'들 뿐이며 우리의 '지성적 구성'만이 참다운 지식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은 분명히 진보한다. 과학자는 거미처럼 논리적 사고를 극대화하고 개미처럼 실험과 관찰에 몰두한다. 그리고 꿀벌처럼 꽃가루를 날라다가 침을 발라 꿀이라는 지식을 창출해 낸다. 그러나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물 그 자체' 혹은 본체에 관한 지식이 아니다. 아직 우리에게 진리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외딴 섬일 뿐이다. ⑤⑦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웨인주립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